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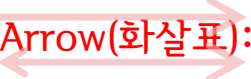





Keep It Simple and Short

2018학년도 수특영독(하)

24제

0. 3년 간 꾸준히 나쁘지 않은(ㅎㅎ) 실적을 내고 있는 저자가, 올해 2월부터 현재의 수능 직전까지 정말 올해 EBS와 최근 기출을 하루종일 달고 살며 선별 및 변형포인트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절평인지라 EBS를 비롯한 영어 공부를 정말 안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 9월 평가원 컷이 이를 방증하죠. 절평으로 소수점, 한자리 점수가 깎인다 해도 본인이 지원한 과의 합불 여부에는 결정적입니다. 삼수를 하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며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보아왔습니다. 제발 영어, EBS 영어 경시하지 마시고 막바지에 열공하셔서 올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18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간접, 직접 연계 지문은 모두 제외한 선별입니다. No worries!
2. 시중 출판된 혹은 유명 인강 강사의 EBS 자료를 평가원이 다 들고 간다고 하는데, 이 자료의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경까지 순차적으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참고할 수도, 참고한다고 해도 이미 문제를 바꿀 타이밍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3. 2018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직접 연계 출제 유형은 어법1, 어휘1, 지칭1, 빈칸2, 흐름1, 순서1, 삽입1 로 총 8개입니다(빈칸 하나가 연결어나 요약으로 바뀔 수도). 이 유형 중 실질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문이 나왔을 경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유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킬러의 범주에 들어가는 유형은 어휘,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을 위한 선별에 집중하였으며, 흐름도 중요 유형이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무난하고, 흐름만으로 변형할 수 있는 지문이 많아 비효율적이라 판단, 제외하였습니다(물론 선별한 지문 중, 저자가 흐름으로 변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ucky!). 어법 또한 중요 킬러 유형이지만 지문의 내용과 논리 흐름을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역시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 선별에서 나올 수 있겠죠. Lucky again!)
4. 작년, 재작년 수능에서 모두 '2문제 장문'이 순서로 변형되었습니다. 6, 9월에 비해 2문제 장문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는 역시 강사 및 학생 분들이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2문제 장문은 꼭 포함을 하였고, 출제된 장문은 지금까지 항상 선별에 있었습니다.
5. 평가원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빈칸의 경우, 비연계에 비해 연계 빈칸이 살짝 구성 면에서, 답의 근거 면에서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시중에 변형된 빈칸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고, 역시 참고 하여 빈칸 변형 하였습니다. 혹, 이 자리가? 라는 느낌이 들어도 감안해주세요.
6. 역설적으로, 연계를 연계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비연계'를 풀 시간이 생깁니다. 열심히 막바지 공부하세요 내신이라 생각하고!
7. 타 사설 문제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음(관심도 없음..) 미리 알려드립니다. 좋은 지문의 좋은 변형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8. 정말 마지막 순간을 노리고 제작한 자료이기에, 당연히 검토는 하지만 소소한 오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  : 지문의 내용상 3단(가끔 2단) 구성을 구분하는 표시, 요약의 구성과 동일
- Underline(밑줄)**: 보통 답의 '근거'. 혹은 답 그 자체
-  **Arrow(화살표)**: 답과 답의 근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 (쌍방향은 대조로 보여줌)
- Bold(진하게)**: 중요 어휘 정리
-  **Summary** : 글의 삼단 구성을 바탕으로 요약. '핵심을, 간결하게, 가끔은 재미진 말투로' 표현
-  **KEY Point** : 보통 글의 '변형' 포인트와 근거 설명. 추가적인 소재 설명이나 기출과의 연관성도 설명
Means and Ends: 수단과 목적 /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  **Vocabulary** : 지문에서 어려워면서 중요한 어휘, 표현. 한번에 알아 두면 좋은 건 길어도 한번에 표시
- 기타 자료에 관한 모든 질문은 메일 sheanlee23@gmail.com으로 보내시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석'을 꼭 해본다. 단순한 해석 뿐만 아니라 지문의 논리 흐름을 잡으려 노력한다. 이해가 안 되면 두 세번 정도 정독해도 좋다.
2. '어휘'를 참고하여 모르는 어휘를 보충하고 다시 해석을 해본다.
3. 이제 '요약'을 참고하여 몰랐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러한 삼단 구조로 글을 '단순화(simplification)'하여 이해할 수 있구나 깨달으며, 맘 속에 저장한다. 혹 요약을 봐도 해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경우 거의 95% 이상 중요하지 않은 부연 설명, 예시 부분이므로 넘어가도 좋다(원래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다!)
4. '변형' 포인트 부분을 보며, 이러한 이유로 근거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구나를 이해한다. 제발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자. 그래야 아, '비연계'도 이러한 논리로 나오는구나, 이해하면서 비연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를 했다면, 맘 속에 저장한다.
5.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빠르게 꼭 해석을 하여 머릿속에 흐름을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간다.
6. 1~5의 과정은 독자의 실력 및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혹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한 번 해석 →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어휘 및 요약으로 이해 → 변형 포인트 이해' 정도로 하고 얼른 얼른 넘어가는 걸 추천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금이다!
7. 한 번 쪽 돌리고 수능 직전에 한 두 번 더 돌린다(이미 한 번 돌리면 2, 3번째는 획획 볼 수 있다. 시간 부담 ㄴㄴ). 한 번 돌린 걸로는 기억이 잘 안 나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caution!
8.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직접 연계의 도움을 크게 받아 가볍게 영어를 1등급 찍어준다.
9. 기쁜 마음에 후기를 올린다.
10. 가고픈 대학을 간다. 끝.

Research has shown that high levels of **automation** for tasks can put users out-of-the-loop, leading to low levels of **situation awareness**. As long as situation awareness is **compromised**, the ability of the user to be **(빈칸)an effective decision maker** is **threatened**. In 1996, an American Airlines B-757 crashed in the mountains around Cali, Colombia. The crew had lost awareness of the actions of the aircraft's automated flight management system computer that was providing **navigation** and was unable to regain sufficient situation awareness to **resume** safe control of the aircraft. While a person does not need to perform every task, the person does need to **be in control of managing what the systems are doing in order to maintain the situation awareness** needed for successful performance across **a wide variety of** conditions and situations.

* out-of-the-loop: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Summary

1. 자동화 발달 → 상황 인식 하락 → 효과적 결정자 능력 하락!
2. Ex.: 비행기가 산에 충돌했는데, 당시 승무원들은 자동 비행 시스템 조치 방법을 몰라 비행기 통제 불가능
3. 여러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상황인식을 위해서, 시스템이 하는 일을 통제 관리할 줄은 알아야 함!

KEY Point

1. 변형: 구 빈칸. Cause: 상황 인식 능력 잃음 → Effect(as a problem): **효과적 결정자**로서의 능력 하락!

Vocabulary

1. automation: 자동화
2. situation awareness: 상황 인식
3. compromise: 위태롭게 하다
4. threaten: 위협하다
5. navigation: 항행
6. resume: 재개하다
7. in control of: ~을 통제하는
8. a wide variety of: 광범위의 다양한

Tourism is a **double-edged sword**, which on one hand **grants**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sale of tickets and visitors spending on hotels and restaurants, but on the other, places stress on the communities who live in the destinations. Venice is a case **in point** since it benefits financially from its buoyant tourism industry, but struggles to **cope with** the attendant **(A)conservation** problems associated with such a large annual influx of tourists. Venice is, however, in the relatively **(B)fortunate** position of being able to explore ways of managing visitors **on its own terms** because it is so **well established** as a destination that it is assured repeat visitation. Problems arise, however, with relatively new World Heritage Sites, particularly those in lesser developed economies that are anxious to acquire the developmental benefits of tourism. For such countries, the fact that tourism can be an environmental or cultural threat is far **(C)outweighed** by its **perceived** advantages. Even though there are positive impacts from tourism, it is not always the people who live in World Heritage Sites who benefit. Some sites, for example, charge as much as US\$20 for entrance, but there may be little **transparency** about how this money is used.

* buoyant: 활황인, 경기가 좋은 ** attendant: 수반되는 *** influx: 유입

 **Summary**

1. 관광은 양날의 검: A - 지역 경제에 돈이 됨 vs. B - 지역 공동체에 스트레쓰~
2. Ex.: 베네치아의 경우 관광객이 많아 지역 보존 문제가 있지만, 이미 명성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 가능
3. On the other hand, 보통 개발도상국, 특히 새로운 관광지의 경우, 돈>보존 중시라 문제가 많음!

 **KEY Point**


1. 변형: 어휘. (A) conservation / communication(소통), (B) fortunate / rough(힘든), (C) outweigh / follow(뒤따르다)


 **Vocabulary**


1.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2. grant: 주다, 허락하다
3. in point: 적절한
4. cope with: 처리하다
5. conservation: 보존
6. on one's own terms: 자기 방식대로
7. well-established: 잘 확립된
8. outweigh: ~보다 크다
9. perceived: 인지된
10. transparency: 투명성

Many **well-intentioned** pediatricians, despite evidence to the contrary, still inform parents that a child will **grow out of** their asthma over time. However, the facts speak **otherwise**. A child with physician-diagnosed asthma is viewed as (빈칸) having a **lifelong** condition. It has been recognized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hildren with asthma do not show any symptoms of the disease as they **reach adolescence**. The absence of chest **symptoms** for years can understandably lead a pediatrician to conclude that their adolescent patient's asthma has disappeared. Because pediatricians **rarely** care for their patients after they reach their late teens or early twenties, they will be unaware that their former patient's asthma symptoms have returned. Typically, adults in their late twenties or thirties who develop asthmatic symptoms will **recall** having had mild asthma as a child and are surprised that they continue to have asthma in adulthood or, as they describe, have it "come back after so many years."

*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 ** asthma: 천식

- 
- Summary
1. 많은 소아과 의사의 착각: 천식은 애가 자라면 사라짐, but 천식은 평생 달고 사는 것(ㅠㅠ)
 2. 착각의 이유: 몇 년 동안 가슴 통증이 없으니 천식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 + 아이가 성인이 되면 케어 불가
 3. 어른들은 서른 즈음에 천식 증상을 보이면, 어렸을 때 천식이 돌아온 걸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음!

- 
- KEY Point
1. 변형: 구 빈칸. 천식 증상은, not 어린 시절로 국한, but 나이 들어도 재발 → '평생 가는 질병'

- 
- Vocabulary
1. well-intentioned: 선의의
 2. grow out of: 자라서 ~에서 벗어나다
 3. otherwise: 반대 방식으로
 4. lifelong: 평생의
 5. a significant proportion: 상당한 비율
 6. reach adolescence: 청소년기에 도달하다
 7. symptom: 증상
 8. rarely: 거의 ~않다
 9. recall: 회상하다

International maritime codes **specify** that more maneuverable vessels must **keep out of the way** of less maneuverable vessels. (B The **captains** of more maneuverable vessels, such as power-driven boats, are responsible for avoiding less **steerable** vessels, such as sailing ships, and ships engaged in fishing, and vessels **not under command**. It is easier for powerboats to avoid hitting sailing ships than **vice versa**.) (C **Aviation codes** are based on the same principle. The right of way of the sky ranks craft **in order of the ease** with which they can be controlled. Airplanes in normal operation, which are the most easily maneuvered aircraft, have the lowest priority in **right of way**. Airplanes refueling other aircraft, which are less easily maneuvered, have a greater right of way than airplanes in normal operation.) (A Balloons, which are still less maneuverable than airplanes refueling other aircraft, have a higher priority right of way. Finally, aircraft in distress have the highest priority right of way of all, since an aircraft in distress is very difficult or impossible to control.)

* maritime code: 해양법 ** maneuverable: 조종할 수 있는 *** in distress: 조난사고를 당한

Summary

1. 국제해양법: 조종이 더 쉬운 선박(모터 보트 같은)은 조종이 덜 쉬운 선박을 비켜가야 함
2. 항공법도 마찬가지. 항공기도 통제 쉬운 정도에 따라 순위가 있음
3. 통행권 우선순위 정도: 항공기 < 급유기 < 열기구 풍선 < 조난 당한 비행기(조종 아예 불가)

KEY Point

1. 변형: 순서. 주어진 문장에 이어 B에서 선박의 통행권 우선 순위를 설명 → C에서 'the same principle'이 B를 받음. A에서 'still'이라는 부사가 less를 강조. 즉, 바로 앞에서 급유기가 조종하기 어렵다고 나오고, 열기구가 '좀 더' 어렵다고 나오는 형태로 순서의 근거가 되고 있다.

Vocabulary

1. specify: 명시하다
2. keep out of the way: (방해되지 않게) 피하다
3. captain: 선장
4. steerable: 조종가능한
5. not under command: 조종이 불가능한
6. vice versa: 반대로도 그러한
7. aviation code: 항공법
8. in order of the ease: 쉬운 순서로
9. right of way: 통행권

Sleep, rather than rest, and when the term '**unconsciousness**' can be used, is certainly to be found in insects. For example, at night the bee sleeps for about 6 – 8 hours, when it will often have 'droopy' **antennae**, and be fairly **unresponsive** to other bees **bumping into** it. (Although most insects have very good eyes, there are no **eyelids**, and so we cannot tell from their eyes whether they are asleep.) However, as antennae are just as important as eyes, and probably more so, droopy antennae certainly indicate that the animal is not **in contact with** reality and is not just resting. Bees, as well as flies, can easily be **sleep deprived** by keeping them in continuously moving jars, so that the insects have to fly about all the time. When the jar stops moving they **settle down** and are even less responsive than normal to further, gentle shaking of the jar. It is as if their sleep has become deeper **in compensation for** its loss.

* droopy: 축 늘어진

Summary

1. 곤충들도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무의식' 상태의 잠을 잠
2. Ex.: 벌들은 눈꺼풀이 없어 눈을 보면 자는 걸 알 수 X, but 더듬이가 쳐져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자는 것!
3. 향아리 속에 넣고 계속 돌게 한 실험을 통해(잔인해..), 곤충들도 쉽게 잠이 부족해질 수 있구나 증명

KEY Point

1. 변형: **문장 삽입**. 삽입 문장 다음의 however가 답의 핵심. 삽입 문장이 없다면, 그 앞 뒤 문장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however로 연결될 수 없다!

Vocabulary

1. unconsciousness: 무의식
2. antenna: 더듬이
3. unresponsive: 반응 없는
4. bump into: 부딪치다
5. eyelid: 눈꺼풀
6. in contact with: ~와 접촉하는
7. sleep deprived: 잠이 부족한
8. settle down: 자리잡다
9. in compensation for: ~을 벌충하여